“나토 사상최대 훈련은 중·러 침략대비”

열흘간 ‘에어 디펜더23’
“한·일 등 동맹국 보호에 활용”
25국 전투기 250대 1만명 투입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창설 이후 최대 규모로 진행 중인 훈련이 유럽뿐 아니라 한반도를 포함한 지역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침략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훈련에 참여한 나토 동맹국 사령관들은 독일을 중심으로 진행 중인 이번 훈련을 러시아와 중국의 침략 가능성을 억제할 귀한 교훈을 주는 시간으로 본다고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나토군은 이달 12일부터 23일까지 열흘간 독일을 중심으로 창설 이후 최대 규모 방공훈련인 ‘에어 디펜더23’을 진행하고 있다. 총 25개국이 참여하고 나토군 1만명과 미 전투기 100대 등 250대의 전투기와 항공기, 헬리콥터가 동원됐다.

훈련에서는 독일 발트해 연안 로스토크항에 가상의 동부연합군이 특공대와 함께 사보타주 공격을 가해 나토가 집단방위체제를 상징하는 조약 제5조를 발동하는 상황이 가정됐다.

WSJ은 이에 대해 훈련 참여국들이 ‘러시아와 유사한’ 적군의 공격에 대응하는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훈련 기간 동맹국 군용기들은 나토 동맹국과 러시아가 국경을 맞댄 발트 지역과 흑해 주변에 출격했고 낙하산 부대 강하와 적진 폭격, 미사일 및 전투기 공격 대응 등을 훈련했다.

이에 더해 WSJ은 훈련에 참여하는 국가들이 특히 이번 훈련에 나토 회원국뿐 아니라 협력 국가인 일본, 나토 가입이 지연되고 있는 스웨덴도 참여하고 있다는 점을 짚으면서, 유럽뿐 아니라 아시아 방위도 염두에 둔다는 동맹국 사령관의 언급을 전했다.

전략폭격기 B-1, 전투기 F-35 등 100대를 이번에 투입한 미 주방위 공군의 마이클 로 중장은 이번 훈련의 교훈이 유럽 방위뿐 아니라 한국과 일본과 같은 동맹국들을 중국을 비롯한 적수로부터 보호하는 데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상부터 실행까지 이번 훈련을 주도한 잉고 게르하르츠 독일 연방공군 참모총장은 훈련의 목적이 중국과 러시아 등에 힘을 과시하는 것뿐 아니라 나토가 준비됐고 방어 의지가 있음을 회원국 국민에게 확인시키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훈련은 공격에 대응해 신속하게 넓은 범위에 걸쳐 병력과 장비를 움직일 수 있는 나토의 기동력을 보여주고 있다.

게르하르츠 총장은 이로써 나토의 영토와 영공이 ‘레드라인’(위반하면 걸맞은 대응이 뒤따르는 금지선)이라는 분명한 신호를 러시아 등에 보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지난 16일 훈련이 진행 중인 독일 군용비행장을 방문해 “이번 훈련은 우리가 영토의 모든 1cm를 방위할 준비가 돼 있다는 공언을 모두 곧이들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유로파이터 조종석에 앉아 전투기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기도 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도 20일 독일 야겔 군용비행장을 방문해 “모든 가능한 적이 나토가 함께 있고, 공군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한 공격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훈령의 목적이 억제력에 있음을 거듭 밝혔다. /연합뉴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대원이 20일(현지시간) 독일 가일렌키르헨 나토 공군기지에서 다국적 방공훈련인 ‘에어디펜더23’에 참가할 공중조기경보기(AWACS) 기체를 점검하고 있다. 12일부터 23일까지 진행 중인 ‘에어디펜더23’은 나토 역사상 최대 규모의 방공훈련이다. /연합뉴스

‘최소 41명 사망’ 폭동 교도소 출동한 온두라스 군인들 중미 온두라스의 군인들이 20일(현지시간) 재소자 폭동이 발생한 타마라 시의 여성교도소(여성 사회적응센터·CEFAS)에서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현지 매체는 이날 여성 교도소에서 갱단원 간 분쟁이 촉발돼 최소 41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내부에서는 총격과 방화 등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美, ‘국가비상사태’ 대상으로 북한 또 지정

바이든 “비상한 위협”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북한을 미국의 국가비상사태 대상으로 또다시 지정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의회에 보낸 메시지를 통해 “한반도에서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핵분열성 물질의 존재 및 확산 위험, 핵·미사일 프로그램 추구 등 한반도를 불안정하게 하고 역내 미군과 동맹 및 무역 파트너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북한 정부의 행동 및 정책은 계속해서 미국의 국가안보, 외교정책, 경제에 이례적이고 비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정부의 기타 도발적이고 정세를 불안정하게 하며 억압적인 행동과 정책” 역시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나는 행정명령 13466호로 선포된 북한과 관련된 국가비상사태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북한에 대해 지난 2008년 핵·미사일 위협을 이유로 첫 대북제재 행정명령을 내린 뒤 매년 국가비상사태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미 대통령은 1976년 제정된 ‘국가비상사태법’(National Emergencies Act)에 따라 국가적 위기 발생 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행정 권한을 확대할 수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작년부터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으며, 특히 갈수록 빈도가 높아지는 탄도미사일 발사와 최근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이른바 군사정찰위성 발사 등 도발을 지속해서 규탄하고 있다.

한미일 3국 공조 강화를 통한 대응 수위도 점차 높이고 있지만, 바이든 정부 초기부터 견지해온 대화를 통한 북핵 문제 해결 원칙은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중 상황관리 국면서…바이든, 시진핑에 “독재자” 포문

블링컨, 시 주석 면담 다음날
정찰풍선 설명 과정서 언급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독재자’(dictator)로 지칭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모금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날 행사에서 올해 2월 이른바 ‘중국 정찰풍선’ 사태가 벌어졌을 당시 시 주석이 경위를 몰라 매우 당황해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내가 차량 두대 분량 첩보 장비가 실린 풍선을 격추했을 때 시진핑이 매우 언짢았던 까닭은 그것이 거기 있는 사실을 그가 몰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무엇이 벌어졌는지 모르는 것은 독재자들에게는 큰 창피(embarrassment)”라면서 “그것(풍선)은 거기로 가선 안 되는 것이었다. 그것은 (바람에) 날려 경로를 벗어났다”고 덧붙였다.

시 주석을 콕 집어 ‘독재자’로 표현하진 않았지만, 시 주석이 처한 상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일반론적으로 ‘독재자들’이라는 표현을 꺼내듦으로써 사실상 시 주석에 대해서도 ‘독재자’로 우회 규정한 셈이다. AFP통신은 이를 두고 바이든 대통령이 시 주석을 독재자들과 동일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발언은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양국간 심각한 관계경색을 완화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해 시 주석을 면담한 이튿날 나온 것이다.

미국은 자국 영공에 진입한 해당 물체가 중국 인민해방군의 정찰용 풍선이라고 주장했다. 중국은 민간 기상관측 기구라고 반박해 왔다.

그렇지 않아도 악화일로를 걷던 양국관계는 정찰풍선 사태를 계기로 급격히 경색돼 대화통로까지 사실상 마비됐다.

블링컨 장관은 상황악화를 막고 우발적 충돌을 막을 소통로를 복원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했으나 정찰풍선 사태 이후 차단된 양국 간 직통 군사통신 재개에는 이르지 못하는 등 제한적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19일 캘리포니아주 샌타클래라를 방문한 자리에서 미중 관계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우린 지금 여기 올바른 길 위에 있다“면서 일부 진전이 있다고 평가한 바 있다. /연합뉴스

우크라 남부 대반격에 동부 노리는 러시아

우크라군 “긴 싸움 될 것”

우크라이나가 남부 자포리자주의 러시아 점령지 탈환에 공을 들이는 동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를 공략하고 있어 장기전이 예상된다고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날 일일 상황 보고에서 “러시아가 도네츠크와 루한스크주에서 공격적 행동에 나섰다”며 “앞으로 긴 싸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나 말랴르 우크라이나 국방차관도 국영 방송에서 “우리 군의 공세가 남쪽에서 여러 방향으로 계속되고 있지만, 러시아도 그들만의 공격 방향을 갖고 공세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말랴르 차관은 러시아가 특히 라이만, 바흐무트, 마린카, 아우디우카 등 도네츠크주 4개 지역 인근으로 진격을 시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라이만은 지난해 봄 러시아군에 함락됐지만 지난해 10월 우크라이나가 탈환에 성공했다. 동부 최대 격전지 바흐무트는 지난 달 러시아군 수중에 떨어졌지만, 이후 우크라이나가 도시 외곽으로일부 진격했다. 마린카와 아우디우카는 러시아가 1년 넘게 점령을 노리는 지역이다.

우크라이나군은 이날 보고에서 러시아군이 라이만 지역과 인근을 공격했지만 모두 격퇴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루한스크주 일부는 러시아에 넘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싱크탱크 전쟁연구소(ISW)는 전날자 보고서에서 러시아가 루한스크주의 스바토베와 크레미나 지역 일부를 점령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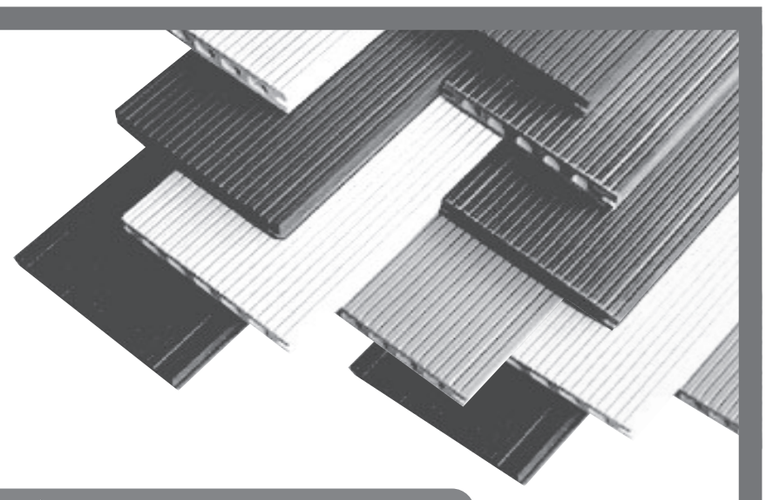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

품질보증 품질인증 Q-Ma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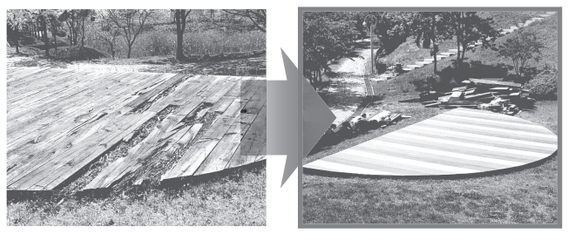


황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마당

부여사비 창작지구

기존데크 →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프론티어벤처 KIBO ISO9001
휴먼이엔티주식회사

문의전화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